

개혁기 중국사회의 그늘
: 지아장커의 천주정(天注定)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철현

2018년 9월21일



영화개요

돈에 눈이 먼 마을 촌장에게 대항하기로 결심한 광부 '따하이', 폭력이 지배하는 현실에 회의를 느낀 시골 출신의 청부살인업자 '조우산', 유부남 애인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사우나 직원 '샤오위',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청년 '샤오후이'. 이들이 현실과 부딪치면서 그려내는 개혁기 중국사회의 그늘

1. 공유제(公有制) 기업의 사유화

▶ 국유기업 개혁

1980년대 방권양리(放權讓利), 청부경영책임제(承包經營責任制), 주식제

1990년대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 조대방소(抓大放小) 산업구조 조정

2000년대 산권개혁(產權改革 국유기업 소유권 개혁), 노동자 신분 변화: "공장의 주인"에서 계약제 임금노동자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851231&cloc=olink|article|default

(중국 국유기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09972&cid=62067&categoryId=62067>

(중앙기업)

▶ 향진기업의 사유화

사대기업(社隊企業): 향진기업의 기원

개혁기 초기 1980년대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농촌의 잉여노동력 흡수

1990년대 경쟁력 약화; 1990년대 후반 “내부자” 사유화

▶ “내부자 사유화(insider's control)”

재직 중이던 경영자나 관련 관료가 해당 기업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방식

공공자산에 대한 약탈이며, 부패의 가능성; 사유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투명성과 감독이 부재

2. 공유제 주택제도의 폐지

- ▶ 1998년 공유제 주택제도의 폐지
단위체제에서 주택은 상품이 아니고 단위에서 무상으로 제공
1990년대 단위체제 약화; 공유제 주택제도 폐지와 구성원의 소속감 약화
- ▶ 주택 "시장"의 출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주택, 개인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 ▶ 달팽이집(蝸居)
매우 작은 집, 한국어로 쪽방;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주택
- ▶ 철거민
1991년부터 토지사용권 매매가 합법화
지방정부가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토지개발수익을 가져감
토지개발 전체수익의 최고 70%가 지방정부에 귀속됨

3. 호구(戶口)제도의 변화

▶ 호구제도

1958년부터 실시된 중국 사회주의 특유의 호적제도

도시-농촌을 분리하는 신분제도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 위한 목적

농민이 도시민이 되는 3가지 방법: 군인, 대학, 결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276&cid=43667
&categoryId=43667](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276&cid=43667&categoryId=43667)

(호구제도)

▶ 변화

지역의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호구제도 변화도 다양

광둥성의 호구제도 - 북경의 호구제도

목적: 경제성장, 사회적 불만, 정치적 폭발력

▶ '점수적립제 도시거민호구 취득' 제도

호구제도 개혁의 방안; 도시화를 적극 고무; 연해지역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 중소도시로의 이주를 유도; 각급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노동력 확보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

▶ '점수적립제 도시거민호구 취득' 제도 관련 규정(「국가 신형도시화 계획 2014~2020년」)

첫째, 전국 도시를 상주인구 규모에 따라, 초대도시(超大城市 1천만명 이상)-특대도시(特大城市 5백만명 이상)-대도시(大城市 1백만명 이상)-중등도시(中等城市 50만명 이상)-소도시(小城镇 10만명 이상)로 분류

둘째, 성(省) 점수적립지표(积分指标)와 해당 도시 점수적립지표를 구성; 성 점수적립지표는 학력, 기술,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사회 공헌도 등에 따라 차등적 점수 적용, 차감되는 지표도 있음. 도시 점수적립지표는 성 지표를 토대로 각 시의 상황과 목적을 반영하여 동일한 지표라도 다른 배점을 부여, 광동성 광저우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를 선호, 이들에게 높은 배점 수여, 반명 광동성 주하이는 공급 부족 업종의 기술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부여

셋째, 우선 해당 도시가 속한 성의 점수적립지표에 따라 합산한 자신의 점수가 도시거민호구를 취득할 수 있는 신청자격조건에 도달; 그 다음 그 도시 점수적립지표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도시의 도시거민호구 취득 신청자격이 주어짐

4. 세습

▶ 푸얼다이(富二代)

세습된 부자 2대

▶ 관얼다이(官二代)

세습된 관료 2대

▶ 핀얼다이(貧二代)

세습된 빈민 2대

▶ “우리 아빠가 리강이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49516.html>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14782

5. 농민공

▶ 발생

개혁기 경제발전을 위해 농촌의 대규모 저임금 잉여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일정정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농민공 발생

호구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됨

전체 농민공 숫자는 2억6000만명(2012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351&cid=43667&categoryId=43667>

(농민공)

▶ 잠주증 제도

임시거주증 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불심검문

▶ 1세대 농민공

1980년대 후반 도시에 들어온 농민들

이토불이향(離土不離鄉): 토지는 떠났지만 고향을 떠나지는 않음

상당수는 향진기업으로 흡수됨

▶ 신세대 농민공

어린 시절 1세대 농민공인 부모를 따라 도시로 왔거나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

이토우이향(離土又離鄉): 토지를 떠났고 고향을 떠남

신분이 농민이지만 농사를 잘 모르고 도시민 정체성이 강함

1세대 농민공처럼 건설업 보다는 3차산업에 취직

정치의식이 비교적 강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자신의 의사표현

▶ 농민공 자녀 교육문제

농촌호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의 학교 입학 불가

2가지 선택지: 사립학교, 농민공 자체 학교

농민공 자체 학교는 국가의 공교육 이념에 위배되는 교육가능

일부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 이중적 노동시장

시민은 단위에 취업, 농민공은 단위 밖에 취업

개혁기 단위에서 해고된 시민은 단위 밖 노동시장에서 농민공과 취업 경쟁

시민은 사회복지 혜택에 제공되는 단위 내에 존재 농민공은 주로 3D위주

의 열악한 민간경제영역에 취업하여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해고된 도시노동자들과 함께 도시빈민층을 형성

▶ 거주지 분리

단위에 속한 시민은 주택을 단위로부터 분배받음

농민공은 단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택을 분배받을 수 없음

동향촌 - 동향관계를 통해 도시 외곽에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여 동향촌(同
鄉村)을 형성하여 공동체 생활하고, 최소비용으로 주택문제 해결(베이징의
저장촌(浙江村), 안후이촌(安衛村), 허난촌(河南村))

저소득 농민공 - 개혁기 이전 중국 도시에 없던 도시 빈민굴 형성

기숙사 - 광둥 같은 외자기업 집중지역은 공장기숙사 형태

▶ 자녀교육

농민공은 도시의 단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함 호구
제도와 교육정책 하에서 농민공 자녀는 기본권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고, 농민
공 2세의 교육권 박탈로 이들의 도시로의 용화에 장애가 됨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호구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호적지를 벗어날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음

6. 바링허우(80後), 주링허우(90後)

▶ 중국의 신세대

1980년대 1990년대에 태어난 중국의 신세대

1980년생의 경우 이미 30대중반

▶ 특성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혁기에 태어나서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냄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애국주의, 국가 자부심, 민족주의 경향
이들 중 상당수는 "달팡이집"에서 살거나, 신세대 농민공
한때 "소황제(小皇帝)"로 오해받음

▶ 어려움

취업난, 주택난, 낮은 소득

7. 개혁기 토지제도 변화와 문제

▶ 개혁기 이전: 삼무 - 무상(無償), 무기한(無期限), 무유통(無流通)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이 토지를 사용하되, 토지사용료와 사용기한 없고, 사용권 유통도 불허

▶ 개혁기 토지개혁의 시작

1982~87년 선전, 푸순(撫順) 등에서 토지사용료 징수하면서 시작 1987년 9월9일 선전 경제특구에서 토지사용권 양도방식으로 50년 기한의 주택용지를 건설기업에 양도 (중국 최초)

이때 50년에 해당되는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음

1990년부터 이러한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방식이 전국 도시에 적용

▶ 현재 토지사용권 배분방식

행정배정(划撥)

개혁기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기관 용지, 군사용지, 도시 기반시설 용지, 공익사업 용지, 국가가 중점을 두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시설 용지 및 기타 법률 및 행정규정에서 정한 용지를 배부하는 것; 무상 사용, 사용기간 제한 없고, 허가없이 재양도 임대 저당 불가능

출양(出讓)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대표하는 현(縣), 시(市)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인민정부에 토지출양금을 일시불로 납부; 토지사용권 출양은 국유토지에 한해 이뤄지면, 농민집체소유 토지는 국유토지로 전환시킨 후 가능; 출양은 가장 대표적인 토지유상사용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은 양도 및 저당 등 물권적 행위가 가능;

토지사용권 출양의 최고 기한은, 주거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용지 50년, 상업 여행 오락 용지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는 50년

연조(年租)

1990년대부터 시행된 토지유상사용 방식; 토지사용료를 매년 납부; 기존 출양방식은 초기에 토지사용료를 일시 납부하고 나면 그 이후 증가하는 토지사용권 가치가 토지사용권자에게 귀속되지만, 연조방식은 매년 증가하는 토지사용권 가치에 기초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토지가치 상승분의 공공 귀속이 가능; 현재 상하이 푸둥신구와 쑤저우 공업단지, 선전 경제특구가 연조방식을 채택

감사합니다!